

박여범이 소소한 일상

짜지, 내 나무 지킴이

커 피 한잔하며 살포시 미소 지을 수 있는 '짜지'가 있다. 바로 '내 나무 지킴이' '짜지'다. '짜지'는 '짜'를 이루는 동료, '뜻이 맞거나 매우 친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는 소통과 행복, 우정과 사랑, 화합과 발전을 위한 '짜지'를 찾아 많은 시간을 세월이란 이름으로 함께 한다. 그런데도 '짜지' 하면 낯설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짜꿍'과 같은 말이라고 하면 바로 환한 미소가 얼굴 가득 채워진다.

짧은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짜지'를 만나고 때로는 이별의 아픔을 겪는다. 이처럼 행복하고, 소소한 '짜지'의 이야기를 시(詩)로 담아 세상에 내놓은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박여범 시인의 '짜지, 내 나무-시'가 있는 이야기Story'. 부르크 2020이다. 이 책은 디지털 문화 속에 소통의 부재로 고통 받는 우리 '짜지'의 이야기 시(詩)라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는 희망을 글로 풀어내고 있다.

『도서 승인』 인병하세요. 부르크입니다. 000님의 '00 000' 부르크. 2020. 제출하신 도서 승인처리 되어 연락드립니다. 사이트 로그인 후 마 이부르크 사재관에서 도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쇄소에 보내는 내지, 표지 시안 확인용 파일 첨부하였습니 다. 첨부된 파일로 제작되었으니 꼭 확인 후 부탁드립니다. 이 짧은 몇 줄의 메일인 한 권의 에세이가 출간 됨을 알리는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디지털 문화는 출판 분야에도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회사가 자가 출판을 지원하고 제작, 판매까지 책임지는 아마추어 글쓰기 작가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시스템이다. 누구나 원고를 작성하고 출판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것도 집이든, 회사든, 카페든, 화장실이든, 작가의 의지만 있다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박 여 범

영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전자출판의 대표적인 회사는 출판 작가가 디자인을 직접 하는 부르크다. 이 회사는 제작 주문이 들어오면 POD 방식으로 진행한다. 유통은 부르크 자체 서점을 이용하여 작가가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기성작가나 글 쓰기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은 출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편집하여 올리면 책이 되는 구조이다.

시(詩)를 읽고 읽을 때마다 피리를 물었던 물음표가 있다. 세상의 많은 시인은 어떤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했을까? 시인의 창작 의도와 독자로서의 내 생각이 동일할까? 너무 지나친 자의적인 해석은 아닐까? 등등 독자로서 바라본 시 해석은 다양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시에 대한 해석이다. 한 마디로 교과서에 실린 시에 대한 해석은 참고서마다 해석은 하나다. 천편일률적인 해석은 시(詩)의 다양한 해석을 방해하고 시인의 창작의도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야기한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짜지, 내 나무'랑 자주 기던 '00사 단풍나무술'에 꽃비가 내린다. 어느 가을날 갑자기 꼬적거렸던 '시가 나무가 되어 꽃피던' 날, 보이는 것은 모두 다 시가 되었다.

그럴 때가 있다. 책을 읽어도, 영화를 보아도, 나훈아 형의 지아지아 명지야, '테스 형'을 들어도, 다

내 말이 시가 되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한다. -박여범, 위의 책, 〈자서〉 중에서-

부모님 뵙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짜지' 지킴이 내 나무 되어 대문 앞에서 차 꿈무늬가 사라질 때까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시던 두 분의 모습이 그림습니다 - Yunsil Choi (짜지, 내 나무) 전문-

위의 시는, '짜지, 내 나무'가 SNS에 댓글을 남긴 짧은 문장이다. 시인은 〈자서〉에 '눈에 들어오는 순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짜지'와 '내 나무'는 그렇게 항상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시인은 책의 제목을 『짜지, 내 나무-시』가 있는 이야기Story'로 정했다고 한다. 아마도 '내 나무'가 서 있는 그곳에는 '그리움'과 '기다림', '애환함', '포근함'이 함께 한다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다. '는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사에 대한 해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1부 특, 던지고 가는 꽃심, 2부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3부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 로 구성되어 있다. 언제나 마주 앉

아 웃을 수 있는 사람, '짜지, 내 나무'의 어렵하고 정답과 행복한 이야기 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펼쳐지고 있음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처럼,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작가라도, 매일매일 글쓰기를 몰방하는 예비 작가와의 경쟁에서 이겨내기'는 버겁다. 어느 날, 한 권의 책이 뚝뚝 출판되는 것이 아니다. 1주일에 한 권의 글을 쓰는 작가가 있다. 그는 매주 짧은 시나 수필을 써 내려간다.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 글을 완성한다. 1년 52주 동안 매주 써 내려간 글이 곧 책이 되는 현실이다.

정답은 '짜지, 내 나무'와 동행하는 일상이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재능이 있어도 그릇에 담아야 한다. 그릇에 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다. 일상의 무료함이 자칫 상대에 대한 모욕감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일상의 행동과 언어 사용을 조심해야 한다. '벼락치기' 공부를 해본 사람을 알고 있다. 일시적인 집중으로 저축된 기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순간순간 일상에 최선을 다하자. 우리의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 바로, '짜지, 내 나무'와 서로를 지켜주는 삶이 아닐까?

유난히 눈이 올 것 같은 차갑고 추운 날씨다. 추위도 너무나 춥다. 꿈 꿔 얼어붙은 손을 녹여줄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짜지, 내 나무'에 전하는 마음은 시(詩)처럼 달콤한 문장이 아니어도 좋다. 마음만 전하면 된다. 이심전심이라고 했다.

피라미를 들고 가던 파란 물총새가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시절, 졸졸 졸 졸 맑고 선명한 도람물에 맨발을 담가 보자. 그리고 마주 앉아 웃을 수 있는 사람 '짜지, 내 나무'와 무명부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 로 구성되어 있다. 언제나 마주 앉

사설

김제 요양원 코로나 확산 막아야

김제 가나안 요양원 발 코로나 확산이 있을까 두렵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로 정황이 심상치 않다. 요양원 종사자들이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미 퍼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감염 경로가 명쾌하게 밝혀진 게 없으니 문제이다.

요양원 측은 물론이고 전북도 또한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온 관계로 허둥대고 있는 것 같다. 정신을 차리고 뒷수습에 있는 힘을 다 해야 한다.이같은 팬데믹은 지난 3월초 대구 경북의 공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 전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75명이 이어 또다시 19명이나 되는 두 자리 숫자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전체 615명을 보고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도 코로나 참궐이 맹렬하다. 지난 며칠 간 3백명대의 신규 확진자를 보고하더니 이제는 4백명대이다. 423 명의 신규 확진자를 속속시켜 누적 확진자 13458명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여전히 심각하다. 이제 3백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

다. 291명 발생으로 누적확진자가 10871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도권 주민들 중에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들이 수두룩하다. 파티룸에서 무리 지어 술을 마시는 이들이 있고 게임방에서 노름을 하는 이들도 있다. 심지어는 성매매를 하는 이도 있다. 참으로 한심한 족속들이다.

거듭 말하지만 김제 가나안 요양원의 코로나 집단 발병 사태는 보통 일이 아니다. 전주도 코로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새소망 교회발 코로나 감염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전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김제처럼 2.5단계로 격상되면 그 경제적 손실이며 불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터이다. 정말이지 다들 깨어서 코로나를 경계해야겠다.

일상의 회복을 원한다면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 매일 강조해 말하거니와 긴장하고 또 긴장해야 한다.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가운데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의식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그제 제대로 안되면 앞으로는 사람 만남 자체가 금지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전북도는 균형발전 목소리 더 크게 내야

전북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말해야겠다. 그것도 강하고 힘차게 말해야겠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이쪽 일장에선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군산에서 지난 수년간 일자리가 대량으로 증발해버린 마당이라서 그렇다. 그런데 현실이 접미가경이다. 고대하는 바 대쪽 지원은 고사하고 균형 발전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말하고 있지만 실익이 없는 그런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마뜩치 않다. 부단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게 뻔하니 말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지역 현안들이 지지부진한 것을 짚어야 한다.전북도는 열심히 애쓰고 있다는 말만 되뇌어서는 안 된다. 고정의 오랜 낙후는 도민의 고통이고 슬픔이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내부개발사업마저도 저러니 다른 사업들이야 오죽하랴! 다. 전북도의 청사진대로라면 진작에 마무리됐어야 할 일들이 아직도 터럭거리는 모양새이니 답답하다.

전북도 관계자들은 이런 지적이 못 마땅할 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지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군산을 위해 명신 공장의 전기차 생산이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조용하다.그런 까닭에 군산은 낙후된 채로 있다.전북의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쓸쓸함이 역력하다. 전북의 지역 발전 보폭이라는 게 다른 광역시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계속 끌리다 당하고 있으니 군산 시민을 포함해 도민들은 불만이 크다.

군산의 오늘은 수 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퇴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균형발전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 전북도는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겠다. 발전 보폭이 마음에 안든다고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전북도는 힘차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음을 생각해 다른 지자체보다 발전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내년도 예산 확보와 관련해 연일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인데 그 길게 계속되면 곤란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차량 운전은 하다보면 어린이를 태운 어린이통학차량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린이를 태운 학원차량이 반대쪽에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를 태우기 위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정차해 아무렇지 않은 듯 어린이를 태우고 손살같이 가 버리는 경우가 종종있다. 민식이법 시행 등 어린이보호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관련 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차량 교통법규 준수 절실

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대부분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교통법규를 지켜가며 차량에 같이 타고 있는 인솔교사의 지도 아래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어린이통학차량은 인솔교사도 동승하지 않거나 운행 또한 위와 같이 위험천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어린이를 태운 통학차량의 경우 경미한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안에 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어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남길 수 있기에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평소보다 배 이상의 주의 의무와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다. 경찰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집중점검·단속단속 등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부모들 또한 어린이통학차량의 운행실태를 관심 있게 지켜봐 난폭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선 경찰 연락 및 시설대표자에 반드시 개선을 요구해주기 바란다.

김종만 김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